

## 주요 노동동향

### ● 생산 및 물가 동향

#### ◆ 2021년 5월 생산은 전월대비 0.1% 증가(전년동월대비 7.3% 증가)

- 전산업 생산은 광공업, 건설업, 서비스업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공공행정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대비 0.1% 증가함.
  - 전년동월대비로는 광공업, 서비스업 등에서 생산이 늘어 7.3% 증가함.
-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전기장비 등에서 늘었으나, 자동차, 기계장비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1.0% 감소함 (전년동월대비 +16.0%).
- 서비스업 생산은 숙박·음식점 등에서 늘었으나, 도소매, 금융·보험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0.2% 감소함 (전년동월대비 +4.4%).

#### ◆ 2021년 5월 소비는 전월대비 1.8% 감소,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3.5% 감소

- 소매판매액지수는 승용차 등 내구재(1.0%) 판매가 늘었으나, 의복 등 준내구재(-8.8%),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4%) 판매가 줄어 전월대비 1.8% 감소함 (전년동월대비 +3.1%).
-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3.0%) 및 항공기 등 운송장비(-4.5%) 투자가 모두 줄어 전월대비 3.5% 감소함 (전년동월대비 +11.0%).
- 건설기성(불변)은 전월대비 4.1% 감소, 건설수주(경상)는 전월대비 16.8% 감소함.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기(월)대비, ( ) 안은 전년동월대비)

		연간			분기				분기				월		
		2018	2019	2020	2019				2020				2020	2021	
					1/4	2/4	3/4	4/4	1/4	2/4	3/4	4/4	5월	4월p	5월p
생산	전산업	1.5	1.0	-1.2	-0.6	1.1	1.0	0.6	-1.8	-3.0	2.8	1.6	-1.5	-1.2( 8.7)	0.1( 7.3)
	광공업	1.4	0.4	-0.4	-1.9	1.9	1.8	0.7	-0.6	-6.5	6.0	2.9	-7.7	-1.6(12.6)	-0.7(15.6)
	제조업	1.3	0.5	-0.3	-2.1	2.1	1.8	0.9	-0.6	-6.9	6.4	3.1	-7.9	-1.6(13.2)	-1.0(16.0)
	건설업	-4.2	-2.3	-4.1	2.6	0.2	-2.2	1.0	-0.7	-2.9	-2.8	2.5	-3.1	-2.2(-3.2)	-4.1(-7.6)
	서비스업	2.3	1.4	-2.0	0.3	0.5	0.7	0.4	-2.9	-1.3	2.0	0.9	2.0	0.2( 8.3)	-0.2( 4.4)
소비	소비재 판매	4.3	2.4	-0.2	1.5	0.2	-0.1	2.0	-5.7	5.9	-1.1	0.9	3.5	2.1( 8.7)	-1.8( 3.1)
투자	설비투자	-3.6	-5.7	6.0	-3.4	2.1	2.0	3.4	-1.0	2.7	2.2	0.8	-5.7	3.8(17.1)	-3.5(11.0)
물가		1.5	0.4	0.5	-0.4	0.4	-0.1	0.3	0.5	-0.8	0.6	0.1	0.2	0.1( 2.6)	-0.1( 2.4)

-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B), 제조업(C),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을 포함.
-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개정)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 및 창고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정보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N),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수도·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E))를 포괄함.
- 3) 2019년 이후 전산업 연간수치는 농림어업을 제외한 수치임.
- 4) 물가상승률 월별 자료는 순서대로 2020년 6월, 2021년 5월, 2021년 6월 기준임.
- 5) p는 잠정치임.
- 6) 생산, 소비, 투자의 분기 및 월 수치는 계절조정계열 전기(월)대비, 연간 수치는 원계열 전년대비임.
- 7) ( ) 안은 원계열 전년동월대비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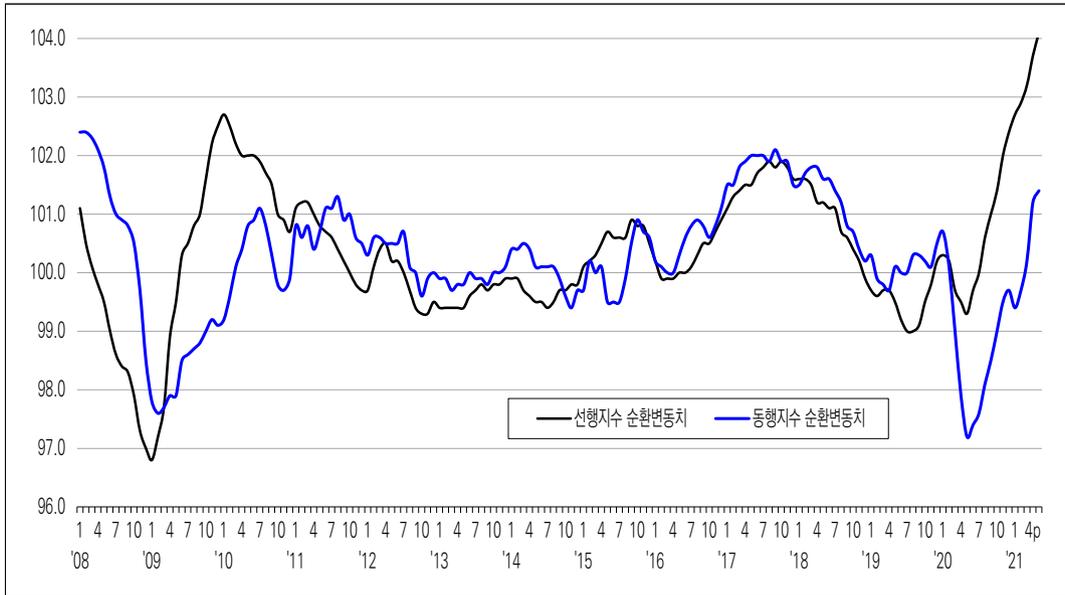
### ◆ 2021년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1% 하락(생활물가지수 전월대비 변동 없음)

- 2021년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7.39(2015=100)로 전월대비 0.1% 하락함 (전년동월대비 2.4% 상승).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월대비 교통(0.8%), 음식·숙박(0.2%), 주택·수도·전기·연료(0.2%), 가정용품·가사서비스(0.1%), 주류·담배(0.1%)는 상승, 의류·신발, 보건, 통신, 교육은 변동 없으며, 식료품·비주류음료(-1.1%), 오락·문화(-0.5%), 기타 상품·서비스(-0.4%)는 하락함.
  - 생활물가지수는 식품은 전월대비 0.4% 하락, 식품 이외는 전월대비 0.3% 상승하여 전월대비 변동 없음.

◆ 2021년 5월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3% 상승, 선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7% 상승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2p 상승함.
-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4p 상승함.

[그림 1]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2015=100)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경기종합지수』, KOSIS.

(이기범, 동향분석실 연구원)

●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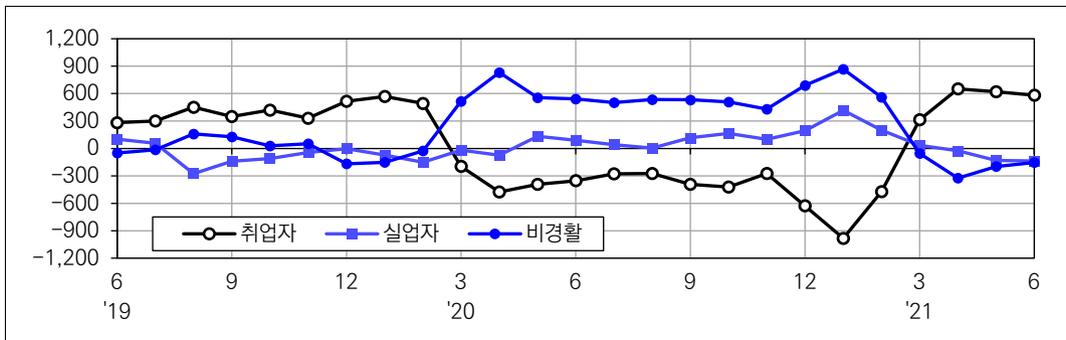
◆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증가폭 축소, 전월대비는 보합

○ 2021년 6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58만 2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소폭 축소됨(전월대비) 1만 8천 명 증가).

- (산업별) 전년동월대비 6월 제조업 취업자는 감소 전환되었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는 증가 추세를 이어 감. 건설업은 큰 변화 없이 증가를 지속함. 도소매는 감소폭이 확대되었으나 정보통신업 및 전문과학기술에서 뚜렷한 증가세가 이어 짐. 보건복지는 임시직과 고령층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됨.
- (연령별) 6월 20대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고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폭이 확대됨. 30대는 취업자와 실업자의 감소폭이 확대되었지만 40대는 취업자가 증가 전환함. 50대와 60세 이상 취업자는 증가폭이 축소됨.
- (종사상 지위별) 전년동월대비 6월은 임시직의 증가폭이 확대되고 일용직의 감소폭이 확대됨. 임시직은 음식숙박, 금융보험 등에서 증가폭이 확대되고 제조업에서 감소폭이 축소됨. 일용직은 건설업에서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고 음식숙박에서 감소폭이 확대됨.
- (일시휴직자) 6월 일시휴직자는 상용직 및 임시직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32만 6천 명 감소하며 감소세가 둔화되는 추세임.
- (실업자) 6월 실업자는 전월과 크게 차이 없이 전년동월대비 13만 6천 명 감소함.

[그림 1]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 증감 현황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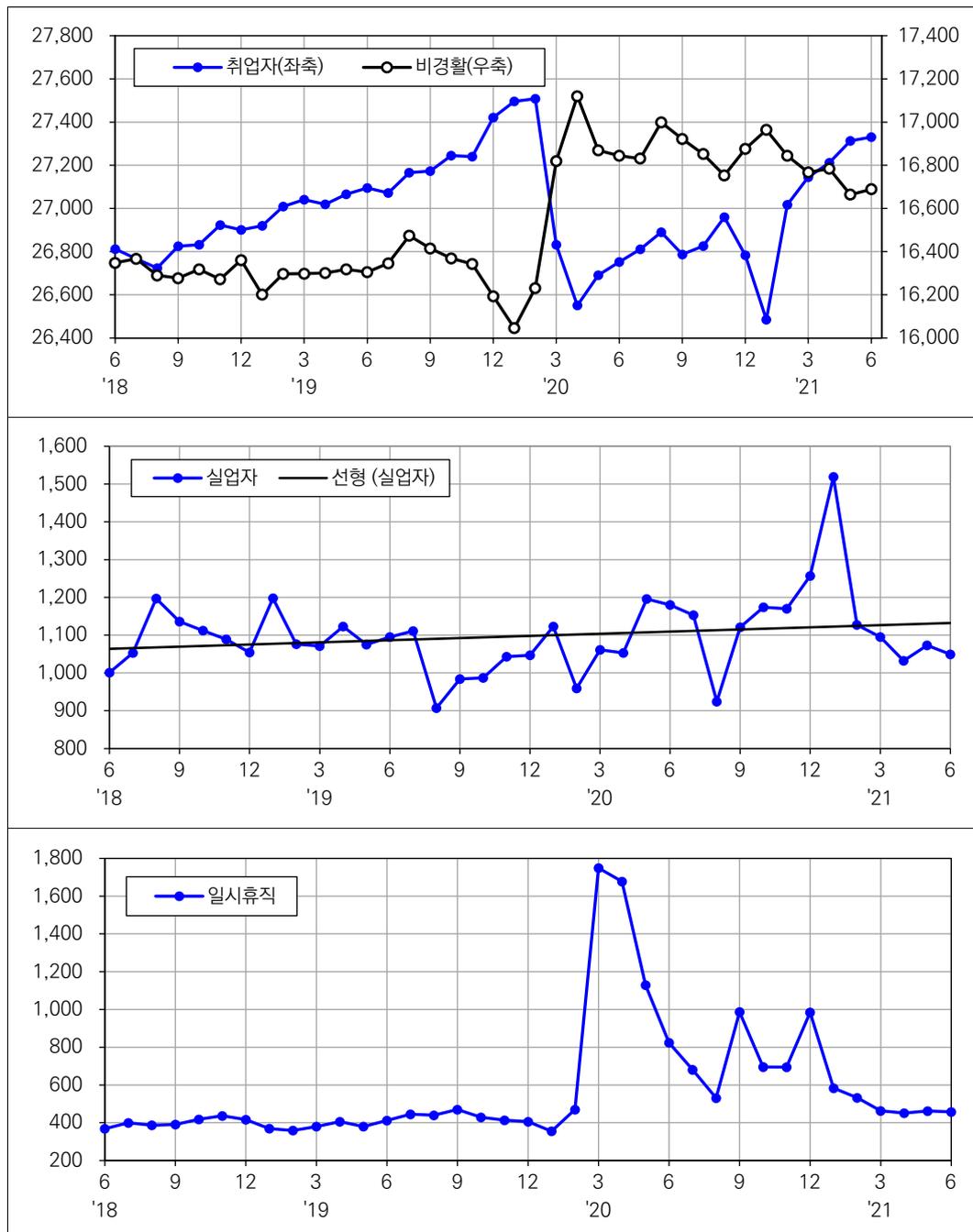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 본고에서 전월대비 수치는 통계청 계절조정계열 자료를 활용함.

[그림 2] 계절조정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일시휴직자 변화

(단위 : 천 명)



주 : 일시휴직자는 X-12 ARIMA를 이용하여 계절조정계열을 산출하였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1년 6월은 20대의 고용이 크게 개선되고 50대와 60세 이상은 고용 증가폭이 둔화됨.
  - 20대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이 확대되고 실업자 및 비경활은 감소폭이 확대됨.
  - 30대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와 실업자 감소폭이 확대됨. 40대는 취업자가 증가 전환함.
  - 50대와 60세 이상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됨. 50대는 실업자의 감소폭이 축소된 반면, 60세 이상은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폭이 크게 확대됨.

〈표 1〉 연령별 취업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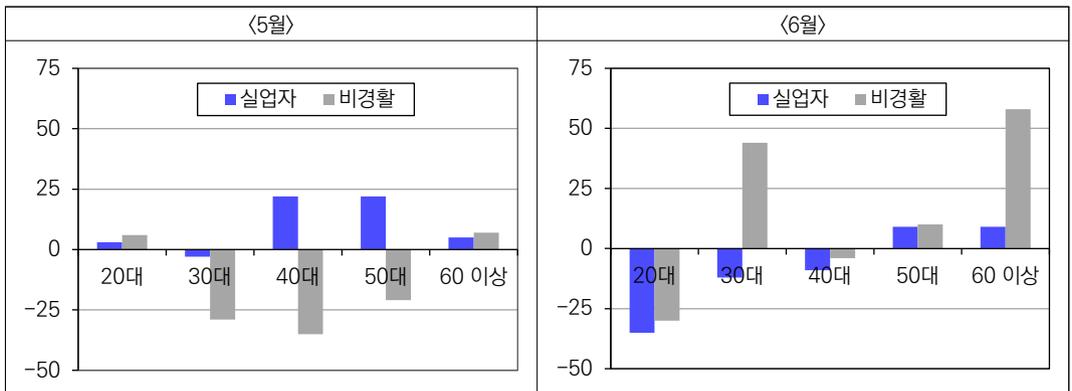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 전년동월대비, ( )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월대비)

	15~19세				20대				30대			
	4월	5월	6월	(전월비)	4월	5월	6월	(전월비)	4월	5월	6월	(전월비)
취업자	47	29	23	(11)	132	109	186	(63)	-98	-69	-112	(-45)
실업자	-1	6	11	(0)	52	-30	-76	(-35)	1	-38	-43	(-12)
비경활	-202	-189	-187	(-25)	-157	-60	-91	(-30)	-53	-45	5	(44)
실업률	-3.4	1.4	4.2	(-0.4)	0.9	-1.0	-2.2	(-0.9)	0.1	-0.6	-0.7	(-0.1)
고용률	2.4	1.7	1.5	(0.5)	1.8	1.6	2.7	(1.0)	0.2	0.6	0.0	(-0.5)
	40대				50대				60세 이상			
	4월	5월	6월	(전월비)	4월	5월	6월	(전월비)	4월	5월	6월	(전월비)
취업자	-12	-6	12	(6)	113	100	74	(-20)	469	455	399	(-11)
실업자	-11	-5	-14	(-9)	-58	-54	-25	(9)	-9	-9	12	(9)
비경활	-49	-64	-75	(-4)	-69	-62	-66	(10)	207	223	261	(58)
실업률	-0.2	0.0	-0.2	(-0.1)	-0.9	-0.8	-0.4	(0.1)	-0.5	-0.4	0.0	(0.2)
고용률	0.6	0.6	0.8	(0.1)	1.4	1.3	1.0	(-0.3)	1.5	1.4	0.8	(-0.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 연령별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 계절조정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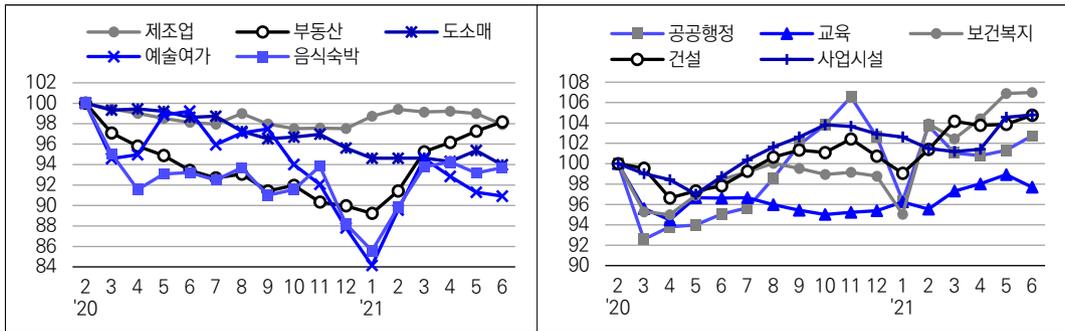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전월대비) 산업별로는 제조업, 도소매, 예술여가, 교육이 감소함. 음식숙박, 보건복지, 사업 시설은 정체 상태임. 부동산, 건설, 공공행정은 개선되는 추세임.
- 공공행정, 보건복지, 건설, 사업시설은 작년 2월 수준 이상을 유지함.

[그림 4]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 계절조정계열, 2020년 2월을 100으로 정규화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2>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원계열)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3개월 전 대비(계절조정계열)	
	4월	5월	6월	4월	5월	6월	증감	증감률
농림어업	-3	-3	16	-39	-14	19	-34	-2.3
광업	-2	-1	-1	0	0	0	0	0.0
제조업	9	19	-10	3	-10	-47	-54	-1.2
전기·가스·증기	-1	-5	-5	-7	2	0	-5	-6.9
수도·원료재생	19	20	17	5	1	1	7	4.3
건설업	141	132	140	-8	2	18	12	0.6
도매 및 소매업	-182	-136	-164	-12	38	-50	-24	-0.7
운수 및 창고업	107	91	89	13	3	10	26	1.7
숙박 및 음식점업	61	4	12	11	-25	12	-2	-0.1
정보통신업	41	29	57	16	0	23	39	4.4
금융 및 보험업	27	25	44	9	-4	9	14	1.7
부동산업	1	14	25	5	6	5	16	3.1
전문·과학·기술	64	58	87	12	0	25	37	3.1
사업시설관리지원	39	101	81	3	42	3	48	3.5
공공행정·사회보장	80	83	87	-3	6	16	19	1.7
교육서비스업	66	42	22	13	17	-23	7	0.4
보건 및 사회복지	224	241	208	47	59	2	108	4.4
예술·스포츠·여가	-11	-39	-43	-9	-8	-2	-19	-3.9
협회·단체·수리·기타	-30	-45	-55	0	6	15	21	1.9
가구 내 고용·자가소비	2	-5	-19	-1	-2	-7	-10	-10.9
국제 및 외국기관	-1	-4	-4	-2	0	0	-2	-11.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종사상 지위별로 2021년 6월은 전년동월대비 임시직의 증가폭이 확대됨.

- 상용직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폭이 축소됨. 도소매업의 감소폭이 확대되고 정보통신, 운수창고, 전문과학기술 등에서는 증가폭이 확대됨. 제조업의 증가폭은 크게 축소됨.
- 임시직은 음식숙박, 금융보험에서 증가폭이 확대되고 제조업에서 감소폭이 축소됨.
- 일용직은 건설업 증가폭의 축소가 이어지고 음식숙박에서 감소폭이 확대됨.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농림어업, 건설업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교육은 감소폭이 축소됨.

〈표 3〉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원계열)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3개월 전 대비(계절조정계열)	
	4월	5월	6월	4월	5월	6월	증감	증감률
상용직	311	355	321	-38	55	13	29	0.2
임시직	379	307	360	92	-13	88	167	3.6
일용직	38	-20	-114	-55	-4	-49	-108	-8.0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65	-67	-84	24	-17	-31	-24	-1.8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7	53	113	6	23	43	73	1.8
무급가족종사자	-39	-10	-15	1	17	-9	9	0.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4〉 종사상 지위별,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명, 전년동월대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월	5월	6월	4월	5월	6월	4월	5월	6월	4월	5월	6월	4월	5월	6월
농림어업	-9	-7	-4	7	2	-1	2	-3	-2	1	-7	-15	9	12	33
제조업	69	46	9	-38	-30	-5	-18	-7	-23	-11	-10	-12	2	8	4
건설업	46	59	65	7	-13	8	74	61	29	5	14	8	4	4	26
도소매	-106	-63	-87	21	20	21	-25	-37	-40	-16	-17	-23	-24	-5	1
운수창고	23	38	48	29	13	4	12	13	14	8	2	-3	34	25	27
음식숙박	4	-49	-54	31	37	79	7	-17	-39	6	-2	3	9	23	22
정보통신	47	39	56	12	8	16	-3	0	1	-1	-2	-4	-13	-17	-12
금융보험	-12	-2	-1	24	20	40	0	-3	-2	2	1	-1	14	9	8
부동산	12	14	20	2	5	7	4	0	0	-15	-10	-9	10	13	14
전문과학기술	45	60	80	25	10	17	0	2	4	-6	-7	-4	5	-1	-5
사업관리지원	60	83	65	-19	-6	11	0	13	-4	-14	-6	-7	7	14	14
공공행정	46	67	66	42	19	24	-8	-3	-3	0	0	0	0	0	0
교육서비스	14	5	-12	67	62	38	0	-1	-2	-3	-3	-5	-25	-29	-5
보건복지	65	87	84	168	168	135	-1	-9	-8	-3	-2	1	-3	-4	-5
예술스포츠	5	1	3	15	9	0	-15	-29	-27	-11	-10	-11	-1	-6	-5
협회단체	-11	-28	-20	-9	-5	-13	5	-5	-15	-8	-8	-3	-2	3	-2
가구 내 고용	1	1	1	4	-7	-20	-1	4	3	0	-1	0	-2	-3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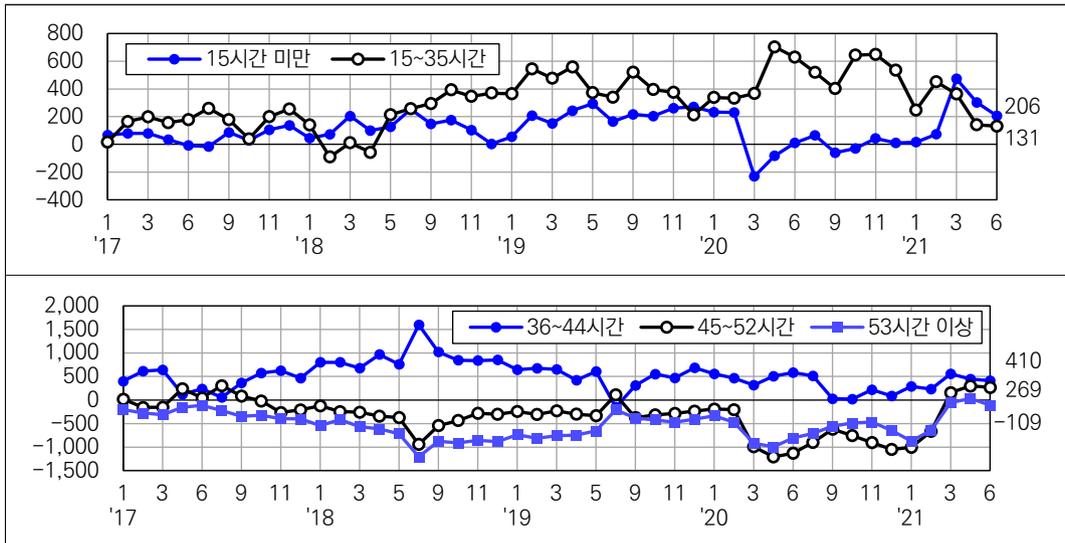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1년 6월 평균 총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0.2시간 증가함.

－ 이는 일시휴직자가 감소(-1.2%p)하고 36~52시간에서 취업자가 증가(+1.2%p)했기 때문임.

[그림 5] 근로시간 집단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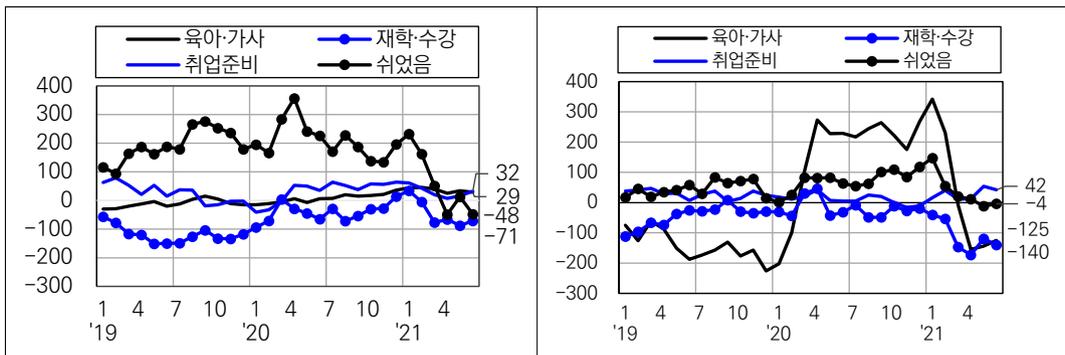
○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15만 4천 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축소(5월 -19만 6천 명)됨.

－ 남성은 쉬었음의 증감폭이 4월 수준으로 감소 전환됨. 취업준비는 증가폭이 소폭 확대됨.

－ 여성은 육아·가사에서의 감소폭 축소가 이어짐. 재학·수강은 감소폭이 소폭 확대됨.

[그림 6] 성별(남자 : 좌, 여자 : 우) 비경제활동인구 사유별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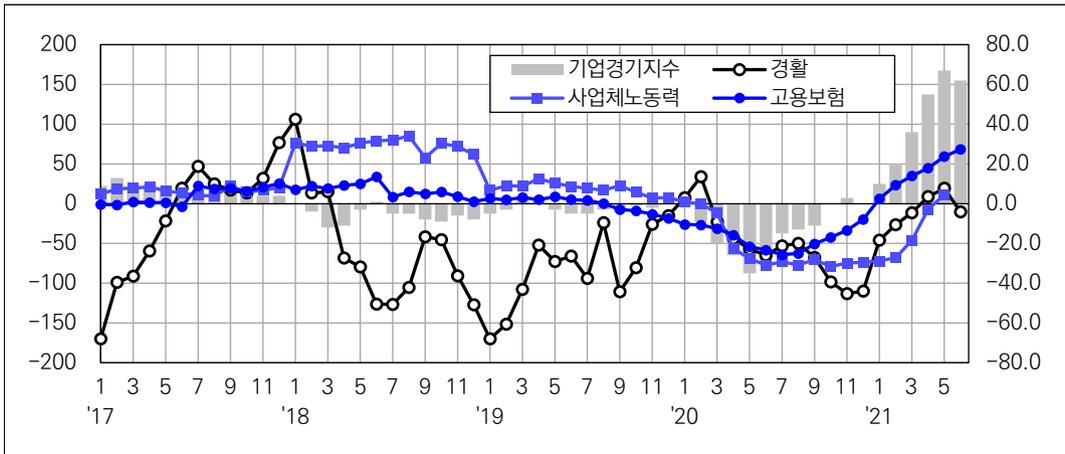
◆ 제조업 취업자는 감소 전환, 서비스업 취업자는 증가폭이 소폭 축소

○ 2021년 6월 전년동월대비 제조업 취업자는 1만 명 감소하며 감소 전환됨.

-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증가폭의 확대가 지속되고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는 증가 전환함. 피보험자는 금속가공, 전자부품, 기타기계, 자동차 등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 경찰 계절조정계열 취업자는 전월대비 4만 7천 명 감소하며 추세선에 접근함.

[그림 7] 제조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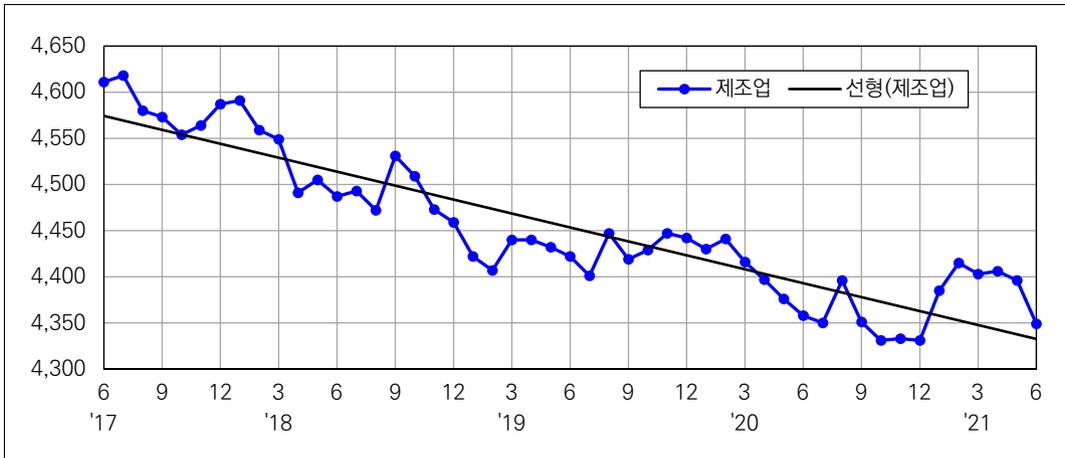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8] 계절조정 제조업 취업자 수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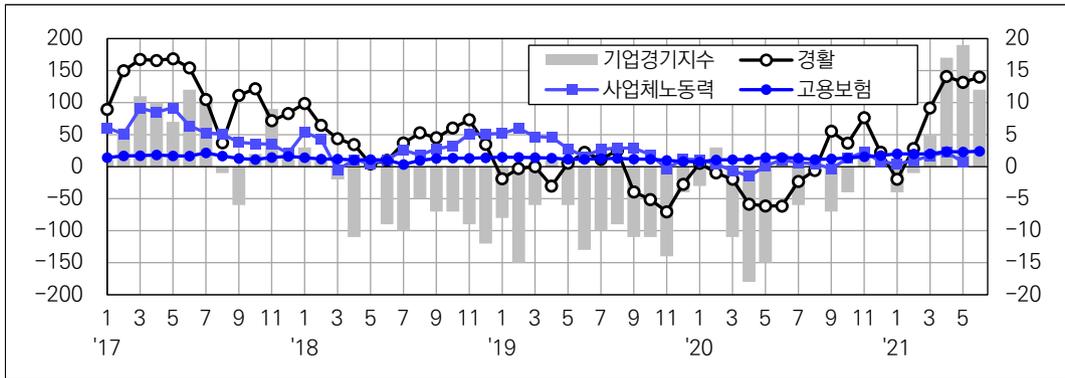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1년 6월 건설업 전년동월대비 취업자는 증가폭을 유지함.

- 기업경기지수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와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도 증가를 유지함.

[그림 9] 건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단위: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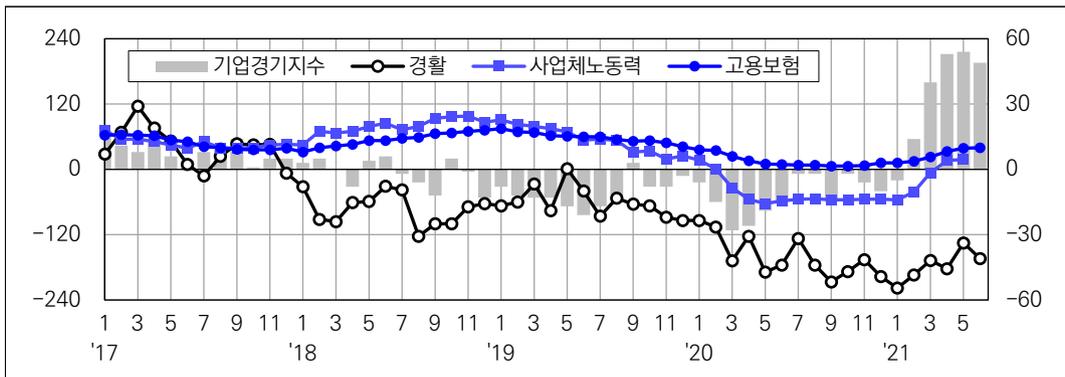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 2021년 6월 서비스업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폭이 소폭 축소됨. 전문서비스업은 고용이 확대됨.

- (도소매) 전년동월대비 상용직, 남성, 30~40대에서 감소폭이 확대됨.
- (정보통신) 전년동월대비 상용·임시직, 20대는 증가폭이 확대되고 30대는 감소폭이 축소.
- (전문과학기술) 전년동월대비 상용·임시직, 20~30대, 10~30인 미만 사업체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 (보건사회복지) 전년동월대비 임시직과 70세 이상에서 증가폭이 축소됨.

[그림 10] 도매 및 소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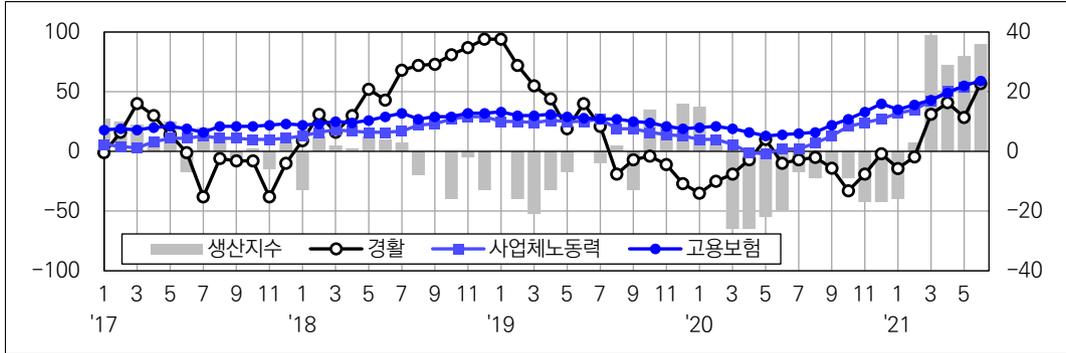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11] 정보통신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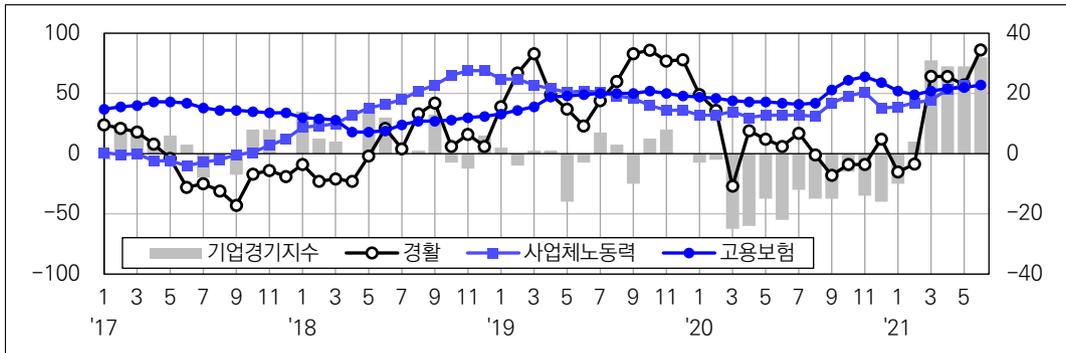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12]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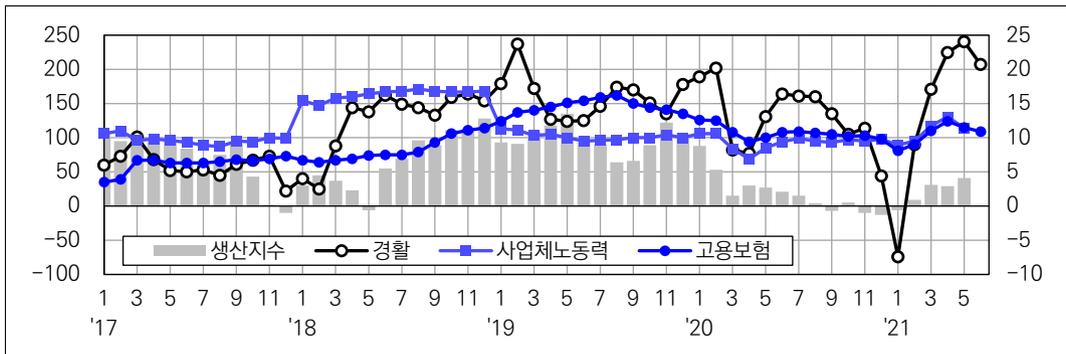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13] 보건업, 사회복지업 고용 증감(좌) 및 생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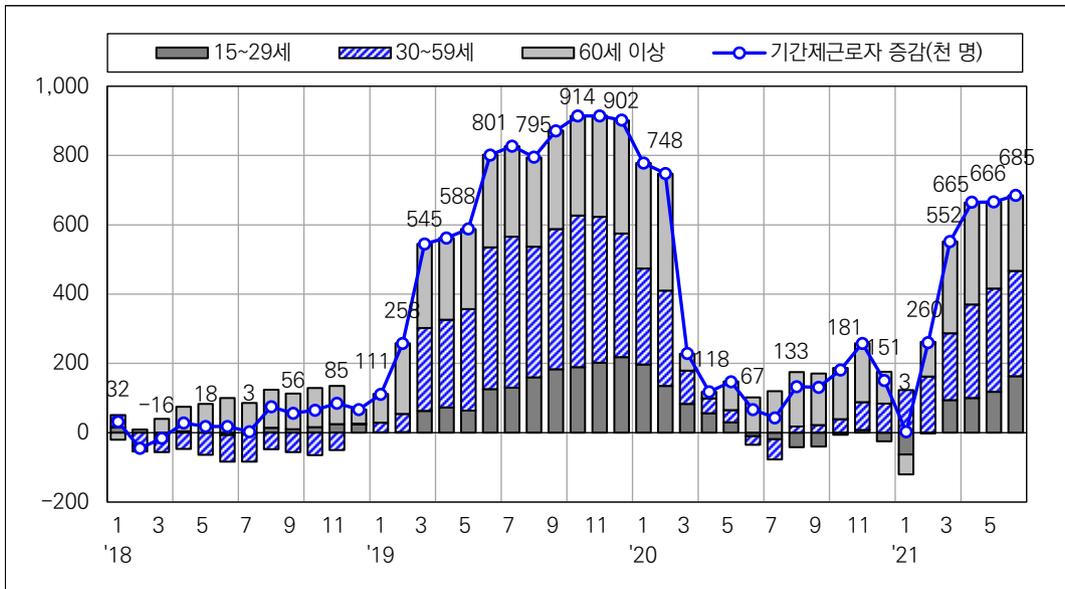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 2021년 6월 기간제 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68만 5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확대됨. 기간제는 4월 이후 60세 미만에서 증가폭이 확대되는 추세이고 60세 이상은 증가폭이 축소되는 추세임. 2019년의 기간제 증가는 2019년 3월 'ILO 신종사상 지위개정을 반영하기 위한 병행조사'가 시작된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임.

[그림 14] 연령대별 기간제 근로자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지상훈, 동향분석실 연구원)

## ●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 2021년 4월 명목임금은 전년동월대비 3.8% 증가

○ 2021년 4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48만 6천 원(+3.8%)임.

- 2021년 4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366만 5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2% 증가, 비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172만 4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6% 증가함.
- 상용근로자의 임금 상승폭 확대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임금상승률이 둔화된 전년 기저효과와 도소매업, 금융보험업 등에서 특별급여 증가 등에서 기인함.
- 비상용(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 상승폭 둔화는, 전년에는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산업의 임시·일용근로자가 감소하면서 임금상승률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2021년 4월에는 건설업 임금상승폭 둔화와 임금수준이 낮은 산업 중심으로 임시·일용근로자 증가, 최저임금 상승률 둔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 초과급여: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특별급여: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2021년 4월 소비자물가지수(2015=100.0)를 고려한 실질임금은 전년동월대비 1.4% 증가함.

〈표 1〉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천 원, %, 2015=100.0)

	2017	2018	2019	2020	2020		2021	
					1~4월	4월	1~4월	4월
전체 근로자	3,207	3,376	3,490	3,527	3,583	3,359	3,729	3,486
임금총액	( 3.3)	( 5.3)	( 3.4)	( 1.1)	( 0.4)	( 1.6)	( 4.1)	( 3.8)
상용 근로자	3,418	3,592	3,702	3,719	3,772	3,517	3,930	3,665
	( 2.6)	( 5.1)	( 3.1)	( 0.4)	(-0.4)	( 0.4)	( 4.2)	( 4.2)
	2,764	2,891	3,010	3,077	3,067	3,039	3,067	3,142
	( 3.6)	( 4.6)	( 4.1)	( 2.2)	( 2.3)	( 1.8)	( 2.9)	( 3.4)
초과급여	190	197	202	200	197	193	201	203
	( 0.6)	( 3.7)	( 2.7)	(-0.9)	( 0.0)	(-4.5)	( 2.2)	( 5.2)
특별급여	464	504	490	441	508	285	574	320
	(-2.2)	( 8.5)	(-2.8)	(-9.9)	(-14.2)	(-10.1)	(12.9)	(12.2)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353	1,428	1,517	1,636	1,604	1,681	1,677	1,724
	( 5.1)	( 5.5)	( 6.2)	( 7.8)	( 8.0)	(11.0)	( 4.5)	( 2.6)
소비자물가지수	103.0	104.5	105.1	105.7	105.0	105.0	107.4	107.4
	( 1.9)	( 1.5)	( 0.4)	( 0.5)	( 0.9)	( 0.1)	( 1.4)	( 2.3)
실질임금증가율	1.3	3.7	3.0	0.5	-0.5	1.6	2.6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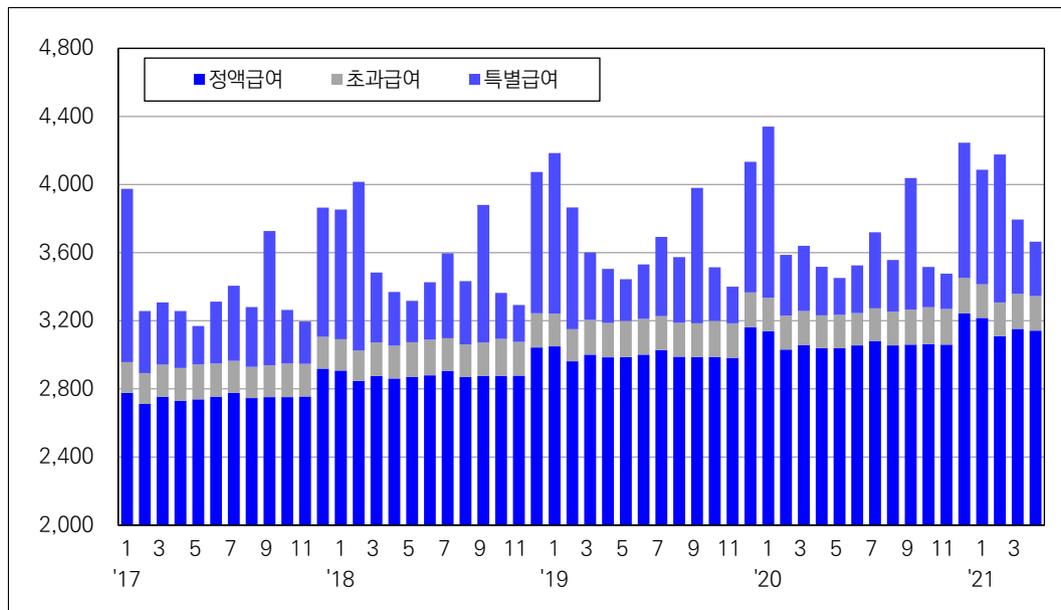
주: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청, <https://kosis.kr>

[그림 1] 상용근로자의 임금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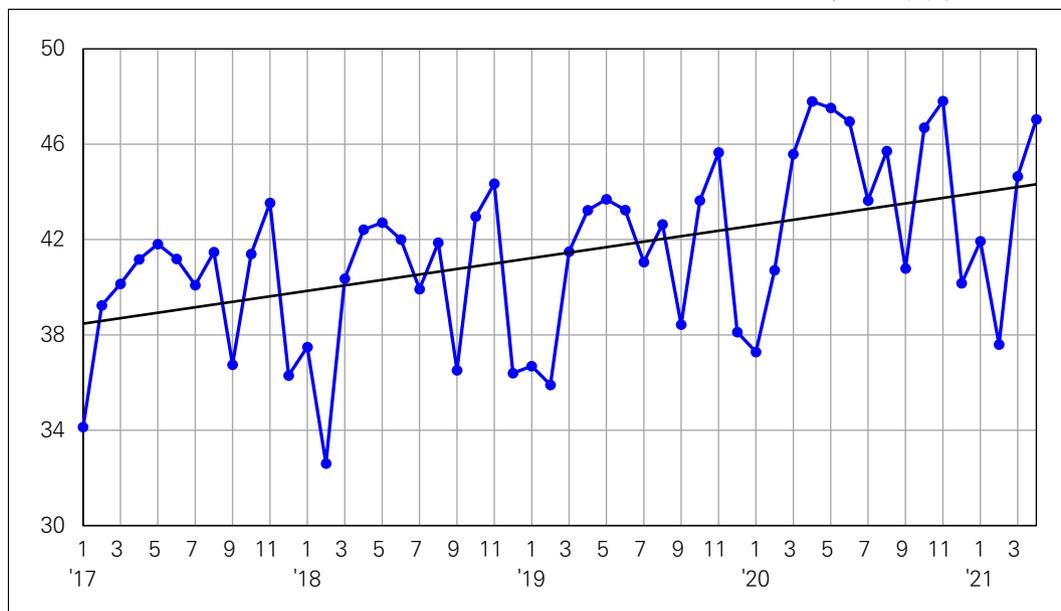
(단위 : 천 원)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2] 임시·일용근로자의 상대임금 비율

(단위 : %, 상용직 임금=100)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1년 4월 중소기업 · 대규모 사업체 모두 임금상승폭 확대

- 2021년 4월 중소기업 · 대규모 사업체 임금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3.7%, 4.0%임.
- － 중소기업(1~299인)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4.1% 증가하였으며, 대규모(30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임금은 4.2% 증가함.
- －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임금상승폭이 둔화된 2020년 4월의 기저효과와 특별급여가 증가하면서 전년동월대비 임금상승폭이 확대됨. 특별급여는 중소기업에서는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제조업과 금융 및 보험업 등에서 크게 증가함.
- － 중소기업 · 대규모 사업체의 비상용근로자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2.6%, 1.3% 상승하였으나 상승폭은 둔화됨.

〈표 2〉 사업체 규모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천 원, %)

		2018	2019	2020	2020		2021	
					1~4월	4월	1~4월	4월
중소 규모	소 계	3,019 ( 4.6)	3,139 ( 4.0)	3,193 ( 1.7)	3,203 ( 1.6)	3,073 ( 1.6)	3,310 ( 3.3)	3,186 ( 3.7)
	상용임금총액	3,217(11.5)	3,338 ( 3.7)	3,377( 1.2)	3,381( 0.9)	3,227( 0.4)	3,498( 3.5)	3,359( 4.1)
	정액급여	2,723( 4.7)	2,841( 4.3)	2,915( 2.6)	2,900( 2.6)	2,885( 2.3)	2,985( 2.9)	2,980( 3.3)
	초과급여	172( 4.8)	175( 2.0)	171( -2.4)	168( -1.7)	164( -6.9)	170( 1.4)	172( 5.1)
	특별급여	322( 1.9)	322(-0.2)	292( -9.4)	313(-11.5)	178(-17.4)	343( 9.7)	206(16.1)
	비상용임금총액	1,422( 5.3)	1,505( 5.8)	1,615( 7.3)	1,581( 7.2)	1,663( 10.1)	1,649( 4.3)	1,706( 2.6)
대규모	소 계	5,305 ( 6.5)	5,356 ( 1.0)	5,242( -2.1)	5,550( -4.4)	4,817( 0.3)	5,851( 5.4)	5,011( 4.0)
	상용임금총액	5,474( 6.4)	5,492( 0.3)	5,335( -2.8)	5,648( -5.3)	4,892( -1.1)	5,955( 5.4)	5,099( 4.2)
	정액급여	3,735( 3.8)	3,843( 2.9)	3,847( 0.1)	3,867( 0.2)	3,769( -0.7)	3,954( 2.2)	3,901( 3.5)
	초과급여	324( 0.0)	335( 3.5)	340( 1.4)	335( 2.9)	331( -0.3)	345( 3.0)	348( 5.1)
	특별급여	1,415(15.7)	1,313(-7.2)	1,149(-12.5)	1,446(-18.7)	791( -3.5)	1,657(14.5)	850( 7.4)
	비상용임금총액	1,509( 7.8)	1,712(13.4)	2,029( 18.5)	2,048( 24.6)	2,025( 28.4)	2,196( 7.3)	2,051(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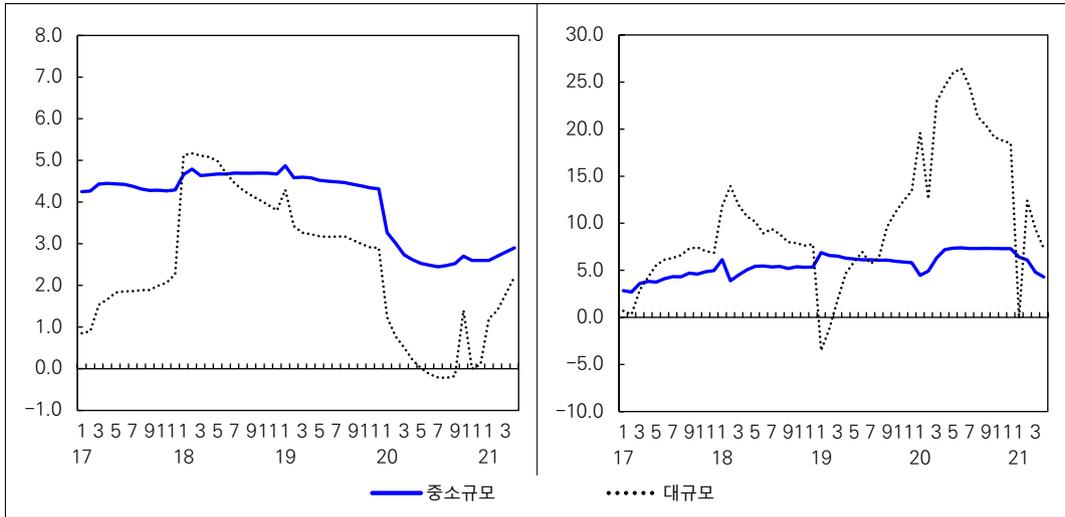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3]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정액급여 증가율(좌, 누계)과 비상용 임금총액 증가율(우, 누계) 추이

(단위: %)



주: 1인 기준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와 비상용 임금총액의 월별 누계값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1년 4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5.4%)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증가

○ 2021년 4월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669만 8천 원)이며, 다음으로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533만 9천 원),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474만 4천 원), 정보통신업(456만 8천 원) 순으로 나타남.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전년동월대비 10.2% 상승함.
- 2021년 4월 임금총액이 가장 낮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186만 9천 원)이며,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240만 3천 원),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258만 원) 순으로 평균임금(348만 6천 원)과 큰 차이를 보임.

〈표 3〉 산업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제10차 표준산업분류)

(단위 : 천 원, %)

	2018	2019	2020	2020		2021	
				1~4월	4월	1~4월	4월
전 산업	3,376 ( 5.3)	3,490 ( 3.4)	3,527	3,583	3,359	3,729 ( 4.1)	3,486 ( 3.8)
광업	3,835 ( 3.3)	3,977 ( 3.7)	4,325	4,217	3,959	4,311 ( 2.2)	4,026 ( 1.7)
제조업	3,930 ( 6.5)	4,017 ( 2.2)	3,990	4,099	3,727	4,324 ( 5.5)	3,904 ( 4.7)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6,436 ( 2.5)	6,502 ( 1.0)	6,733	6,341	5,644	6,360 ( 0.3)	5,339(-5.4)
수도·하수·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3,288 ( 6.5)	3,506 ( 6.6)	3,888	3,765	3,625	3,981 ( 5.7)	3,806 ( 5.0)
건설업	2,784 ( 6.1)	2,951 ( 6.0)	3,032	3,069	3,002	3,085 ( 0.5)	3,021 ( 0.6)
도매 및 소매업	3,214 ( 5.4)	3,372 ( 4.9)	3,423	3,455	3,235	3,568 ( 3.3)	3,378 ( 4.4)
운수 및 창고업	3,357 ( 6.4)	3,476 ( 3.5)	3,530	3,488	3,358	3,670 ( 5.2)	3,516 ( 4.7)
숙박 및 음식점업	1,757 ( 8.1)	1,875 ( 6.7)	1,879	1,896	1,844	1,888(-0.4)	1,869 ( 1.3)
정보통신업	4,277 ( 3.8)	4,463 ( 4.3)	4,613	4,824	4,507	5,068 ( 5.0)	4,568 ( 1.4)
금융 및 보험업	6,026 ( 5.6)	6,236 ( 3.5)	6,526	6,944	6,224	7,657(10.3)	6,698 ( 7.6)
부동산업	2,600 ( 6.3)	2,755 ( 6.0)	2,848	2,831	2,739	2,957 ( 4.5)	2,888 ( 5.4)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757 ( 5.9)	4,901 ( 3.0)	4,871	4,893	4,565	4,995 ( 2.1)	4,744 ( 3.9)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2,203 ( 5.5)	2,332 ( 5.9)	2,411	2,403	2,331	2,474 ( 2.9)	2,403 ( 3.1)
교육서비스업	3,397 ( 2.5)	3,474 ( 2.3)	3,366	3,515	3,181	3,490(-0.7)	3,236 ( 1.7)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799 ( 4.8)	2,960 ( 5.8)	2,942	2,941	2,858	2,989 ( 1.6)	2,922 ( 2.3)
여가관련 서비스업	2,684 ( 6.8)	2,819 ( 5.0)	2,873	2,886	2,631	2,983 ( 3.4)	2,899(10.2)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401 ( 7.2)	2,517 ( 4.8)	2,563	2,541	2,436	2,692 ( 5.9)	2,580 ( 5.9)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임금총액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2017~2019년 자료는 제9차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것임.

3)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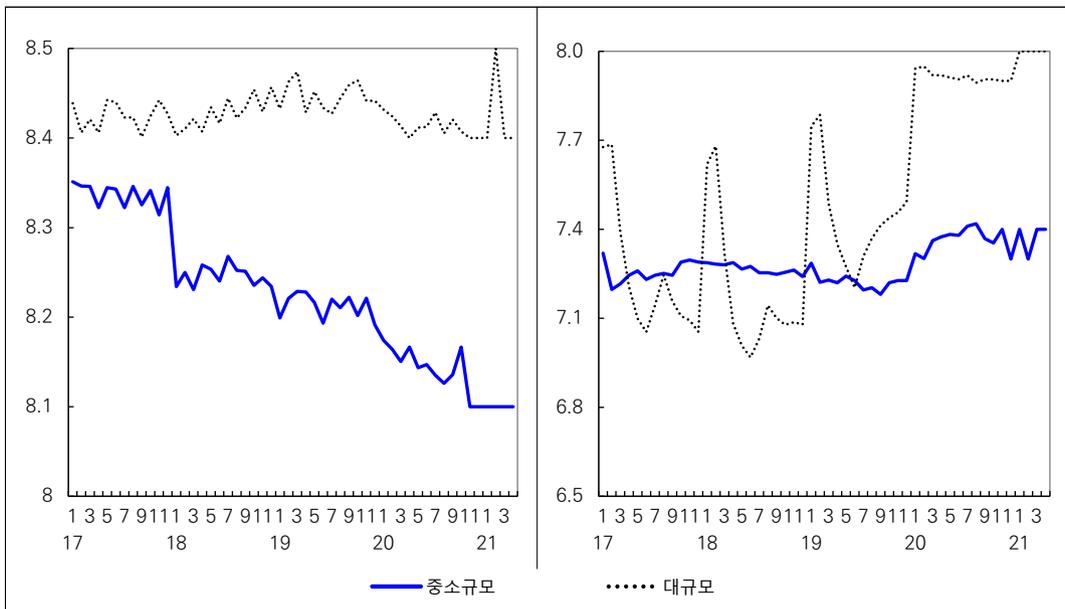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1년 4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69.0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2.3시간 증가 (월력상 근로일수는 22일로 전년동월대비 2일 증가)

○ 2021년 4월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76.0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3.8시간 증가함. 상용근로자는 월력상 근로일수 증감에 영향을 크게 받는 편으로, 근로일수가 전년동월대비 2일 증가한 것이 근로시간 증가로 이어짐.

- 비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 증가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중심으로는 코로나19 방역 대응 및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 유지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 중심으로는 월력상 근로일 수 증가 영향으로 보임.
- 2021년 4월 중소기업 월평균 근로시간은 168.5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2.3시간 증가, 대규모 기업 월평균 근로시간은 172.0시간으로 12.7시간 증가함.
- 비상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중소기업에서는 98.9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7시간 증가, 대규모 기업에서는 130.3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6.1시간 증가함.

[그림 4] 사업체 규모별 상용직 일일 평균 근로시간(좌, 누계)과 비상용 일일 평균 근로시간(우, 누계) 추이  
(단위 : 시간/일)



주 : 일일 평균 근로시간은 상용직, 비상용직 사업체 규모별 전체 근로시간을 상용직, 비상용직 사업체 규모별 전체 근로일수로 나눈 것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표 4〉 사업체 규모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시간, %)

		2018	2019	2020	2020		2021	
					1~4월	4월	1~4월	4월
중소 규모	전체 근로시간	164.1(-1.5)	163.0(-0.7)	160.1(-1.8)	159.4(-1.4)	156.2(-9.3)	158.9(-0.3)	168.5(7.9)
	상용 총근로시간	172.1(-1.3)	171.2(-0.5)	167.6(-2.1)	166.6(-1.7)	162.6(-10.5)	166.0(-0.4)	176.6(8.6)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63(-1.0)	162.6(-0.2)	159.8(-1.7)	158.9(-1.3)	155.1(-10.3)	158.4(-0.3)	168.9(8.9)
	상용 초과근로시간	9.1(-6.2)	8.6(-5.5)	7.8(-9.3)	7.7(-10.5)	7.5(-13.8)	7.6(-1.3)	7.6(1.3)
	비상용 근로시간	99.2(-6.1)	95.4(-3.8)	96.1(0.7)	94.4(-0.9)	97.2(0.0)	95.8(1.5)	98.9(1.7)
대규모	전체 근로시간	163.3(-0.7)	164.1(0.5)	162.8(-0.8)	162.7(-0.1)	159.3(-8.4)	162.5(-0.1)	172.0(8.0)
	상용 총근로시간	166.6(-0.7)	166.3(-0.2)	163.9(-1.4)	163.8(-0.8)	160.3(-9.8)	163.4(-0.2)	173.2(8.0)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54.9(-0.3)	154.9(0.0)	153.0(-1.2)	152.8(-0.8)	149.6(-10.2)	152.6(-0.1)	162.5(8.6)
	상용 초과근로시간	11.7(-4.9)	11.4(-2.6)	10.9(-4.4)	10.9(-2.7)	10.6(-5.4)	10.9(0.0)	10.7(0.9)
	비상용 근로시간	89.2(-1.2)	104.9(17.6)	125.2(19.4)	126.7(25.8)	124.2(36.3)	128.9(1.7)	130.3(4.9)

주: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 2021년 4월 전산업에서 월평균 근로시간 증가

○ 2021년 4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은 광업(191.3시간), 가장 짧은 산업은 건설업(141.2시간)임.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및 원료재생업(184.3시간), 제조업(183.9시간)은 평균 근로시간(169.0시간)을 크게 상회하는 가운데 건설업(141.2시간)과 교육서비스업(145.7시간)은 근로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남.

〈표 5〉 산업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시간, %)

	2018	2019	2020	2020		2021	
				1~4월	4월	1~4월	4월
전 산업	163.9(-1.4)	163.1(-0.5)	160.6	160.0	156.7	159.5(-0.3)	169.0( 7.8)
광업	176.6( 0.5)	175.7(-0.5)	181.2	178.5	177.9	180.0( 0.8)	191.3( 7.5)
제조업	177.1(-1.5)	175.9(-0.7)	172.7	173.3	169.9	173.1(-0.1)	183.9( 8.2)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62.1(-1.7)	160.4(-1.0)	163.7	163.2	168.8	161.9(-0.8)	176.1( 4.3)
수도·하수·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177.8( 0.4)	178.6( 0.4)	176.5	174.4	173.0	175.7( 0.7)	184.3( 6.5)
건설업	138.5(-2.4)	136.3(-1.6)	136.9	137.3	136.1	134.7(-1.9)	141.2( 3.7)
도매 및 소매업	165.2(-1.4)	165.5( 0.2)	163.8	162.5	159.2	162.5( 0.0)	172.0( 8.0)
운수 및 창고업	166.5(-1.6)	164.3(-1.3)	159.0	158.4	152.7	158.1(-0.2)	166.2( 8.8)
숙박 및 음식점업	159.7(-0.4)	158.6(-0.7)	149.7	148.8	143.8	144.8(-2.7)	152.3( 5.9)
정보통신업	161.6( 0.4)	163.9( 1.4)	163.8	163.3	159.1	163.1(-0.1)	174.3( 9.6)
금융 및 보험업	160.9( 0.2)	161.5( 0.4)	162.1	161.8	157.7	162.2( 0.2)	173.2( 9.8)
부동산업	178.9(-3.2)	176.4(-1.4)	173.2	171.0	167.6	170.6(-0.2)	178.3( 6.4)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0.4( 0.2)	161.4( 0.6)	161.7	161.7	158.4	161.3(-0.2)	172.6( 9.0)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163.2(-1.2)	162.7(-0.3)	161.7	161.2	157.5	160.7(-0.3)	169.3( 7.5)
교육서비스업	142.3(-1.5)	142.1(-0.1)	136.6	132.6	131.6	135.6( 2.3)	145.7(10.7)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62.5(-1.2)	162.2(-0.2)	158.6	156.9	153.9	156.4(-0.3)	166.0( 7.9)
여가관련 서비스업	157.7(-1.1)	156.1(-1.0)	149.7	147.6	142.0	148.2( 0.4)	163.2(14.9)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62.0(-1.3)	159.9(-1.3)	160.3	157.8	153.7	160.6( 1.8)	170.2(10.7)

주: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임금총액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2017~2019년 자료는 제9차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것임.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14.9%), 교육서비스업(10.7%)과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10.7%)은 근로시간이 크게 증가함.

(김복순,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2021년 6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관련 조정사건 건수는 12건
  - 6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전년 동월 건수(3건)보다 9건 많은 수치임.
- 2021년 6월 조정성립률 10.0%
  - 6월 조정성립률은 전년 동월 성립률 0.0%에 비해 10.0%포인트 높은 수치임.

<표 1> 2020년, 2021년 6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철회	진행 중	조정 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2021. 6.	12	12	1	1	0	9	1	8	0	2	7	10.0%
2020. 6.	3	6	0	0	0	2	0	2	3	1	0	0.0%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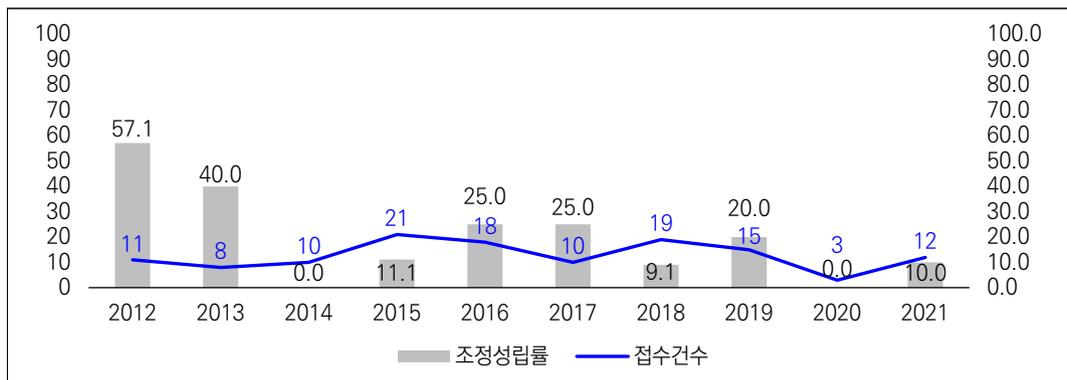
<표 2> 2012~21년 6월 접수건수 및 조정성립률 추이

	2012. 6.	2013. 6.	2014. 6.	2015. 6.	2016. 6.	2017. 6.	2018. 6.	2019. 6.	2020. 6.	2021. 6.
접수건수	11	8	10	21	18	10	19	15	3	12
조정성립률	57.1	40.0	0.0	11.1	25.0	25.0	9.1	20.0	0.0	10.0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그림 1] 2012~21년 6월 접수건수 및 조정성립률 추이

(단위 : 건, %)



◆ 심판사건

- 2021년 6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심판사건 건수는 201건
  - 6월 심판사건 접수건수는 전년 동월(218건)보다 17건 적은 수치임.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26.0%(45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74.0%(128건)를 차지함.

〈표 3〉 2020년, 2021년 6월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내역							진행 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1. 6.	201	173	33	12	73	9	33	13	525
2020. 6.	218	209	44	5	97	17	29	17	511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복수노조사건

- 2021년 6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복수노조사건 건수는 9건
  - 6월 복수노조사건<sup>1)</sup> 접수건수는 전년 동월(5건)보다 4건 많은 수치임.
  -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16.7%(1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83.3%(5건)를 차지함.

〈표 4〉 2020년, 2021년 6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내역							진행 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1. 6.	9	6	1	0	3	1	1	0	11
2020. 6.	5	7	1	1	4	1	0	0	8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1) 복수노조 사건은 교섭요구, 교섭대표, 교섭단위, 공정대표 사건 등 복수노조 제도와 관련된 사건 일체를 말함.

### ◆ 전교조 법외노조 만들었던 ‘노조 아님 통보’ 시행령 삭제

#### ○ 7월 6일부터 적용

- 6월 22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노조 아님 통보’ 조항이 사라지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앞서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이른바 ‘ILO 3법’에 대한 후속 작업의 일환임.
-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전교조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로 통보했음. 이어진 소송 끝에 대법원은 2020년 9월 이런 통보를 ‘무효’로 보았을 뿐 아니라 문제의 시행령 조항이 법률이 위임하지 않은 내용까지 정하며 헌법상 노동 3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했음.
- 다만, 정부는 시행령에서 문제의 조항을 개정하면서 노조의 설립신고서 반려 사유가 발생하면 행정관청이 30일 동안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은 남기기로 했음.
-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ILO 3법’은 7월 6일부터 시행됨.

### ◆ 첫 소방공무원 노조 탄생

#### ○ 단체행동권 제한돼 파업은 금지

- 7월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출범식을 열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소방 본부가 가입했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을 열고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했음.
- 양대노총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날 현재 민주노총 소방노조 조합원은 8천여 명, 한국노총 소방노조 조합원은 6천여 명으로, 전체 소방공무원 6만 명의 23%에 이룸.
- 소방공무원은 노조 가입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던 개정 전 공무원노조법에 막혀 이제껏 노조를 만들지 못했음.
- 2020년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협약 가운데 하나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비준을 추진하면서, 소방공무원과 퇴직 공무원에게도 노조 할 권리를 확장하도록 공무원 노조법을 개정했고 2020년 12월 이 법이 통과돼 이날부터 시행됐음.
- 소방공무원노조는 장시간 노동과 노후화한 장비 지급 등 열악한 노동 환경부터 개선하는데 주력할 예정임.

◆ 삼성디스플레이 노사, 임금협상 최종 합의

○ 투표율 54%, 찬성률 83%로 가결

- 7월 5일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7월 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2021년도 임금협상 최종안’을 놓고 노조원 전체 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율 54%에 찬성률 83%로 가결됐음.
- 당초 노조는 기본인상률 6.8%와 위험수당 현실화 등을 요구했음. 그러나 사측은 기존 노사협의회와 합의한 기준인상률 4.5% 이상으로 임금을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음.
- 노조는 기존 노사협의회가 확정된 4.5%를 받아들이기로 했음. 다만, 사측은 다음 임금협상을 위해 임금 관련 자료를 제공하기로 약속했음.

◆ 현대제철, 계열사 세워 협력업체 7,000명 ‘정규직’ 채용

○ 인권위 권고 2년 6개월 만에 수용기로 결정

- 7월 6일 현대제철은 계열사를 설립해 협력업체 근로자 7,0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 1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을 시정하라고 현대제철에 권고한 지 2년 6개월 만에 내린 결정임.
-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현대제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7,000여 명의 협력업체 직원들은 현대제철 계열사 소속으로 새롭게 채용될 전망이다. 그동안 현대제철 사내 협력업체 직원들은 원청업체인 현대제철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등 지속적으로 근로환경 개선을 요구해 왔음.
- 현대제철은 향후 각 사업장별로 계열사를 설립하고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우선 채용할 계획임.

◆ 대법원 “현대위아, 사내하청 비정규직 직접 고용해야”

○ 협력업체 근로자들, 소송 제기 6년 7개월 만에 승소 확정

- 7월 8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 등 현대위아의 사내협력업체 직원들이 현대위아를 상대로 낸 고용의사표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함.
- 재판부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현대위아의 평택 1, 2공장에 파견돼 현대위아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고 하였고 “공정에 필요한 전체 인원이나 각 공정별 투입인원에 관한 실질

- 적 작업배치권, 현장 및 휴일근로 지시권 등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노무관리  
에 관한 결정 권한은 실질적으로 현대위아가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음.
- A씨 등 근로자들은 현대위아의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평택 1·2공장에서 엔진조립 업  
무를 담당했음. 이들은 현대위아가 파견법에 따라 자신들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데도 외면하  
고 있다면서 2014년 12월 소송을 제기했음.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  
용하는 경우’와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함.

### ◆ 5년간 경기도 물류창고 827건 화재

- 사상자 102명, 재산피해는 1,940억 원
  - 6월 21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5년간 경기  
도 내 2만 8,200여 창고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827건임.
  - 화재로 인해 사망 46명, 부상 56명 등 102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음. 재산 피해는 부동산  
617억 원과 동산 1,323억 원을 합쳐 1,940억 원에 이룸. 연평균 165건의 화재가 발생해  
20명의 사상자와 388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셈임.
  - 소방재난본부 분석 결과, 전체 화재의 60%가량은 지은 지 10년 이상 된 창고시설에서 가  
장 빈번하게 발생함.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700여 곳에 이어 올해도 벌써 100곳 이상의 물류  
창고가 새로 생겼지만 화재에 대한 대책은 ‘스프링클러’ 이외에는 전무함.

### ◆ 최근 5년간 건설현장 추락사고로 1,300여 명 목숨 잃어

- 노동자 추락사는 대규모 건설현장보다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많이 발생
  - 6월 27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882명 중  
건설업 사망자가 51.9%(458명)를 차지했음.
  - 건설업 추락사고 사망자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1,348명으로 매년 270명 안팎의 노  
동자가 목숨을 잃었음. 건설업에서 일하다 숨진 전체 노동자의 56.7%를 차지함. 고용부가  
2020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236명의 추락사고 사망자를 분석해 보니 비계와 지붕·대들  
보에서 각각 47명이 사망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음.
  - 노동자 추락사는 대규모 건설현장보다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많이 발생함. 2020년 1  
억~20억 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84명이 추락사고로 숨졌고, 1억 원 미만 현장에서는 77명

- 이 목숨을 잃었음. 20억~120억 원 미만과 120억 원 이상 규모의 건설현장에서는 각각 45명, 29명이 사망했음.
- 고용노동부는 7월부터 사고사망이 잦은 전국의 추락·끼임 위험현장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착수함. 중소기업 사업장의 집중 안전점검을 통해 현장 안전조치 이행을 독려하고 안전관리 관행 변화를 유도해 산재사고 사망자 감소에 기여한다는 방침임.
  - 현장점검은 사고위험이 큰 현장을 불시에 순찰·점검하는 식으로 이뤄짐. 공사 규모 12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추락 관련 고위험작업인 비계와 발판 작업, 철골·트러스 작업, 지붕·대들보 작업, 달비계 등을 주로 살핌.

### ◆ 대체공휴일법 국회 통과

#### ○ 2021년 하반기부터

- 6월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하 대체공휴일법) 제정안을 재석 206명, 찬성 152명, 반대 18명, 기권 36명으로 가결 처리했음.
- 해당 제정안은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부칙을 통해 올해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했음.
- 2021년 하반기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8월 16일이 휴일이 되며,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에는 10월 4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에는 10월 11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에는 12월 27일이 공휴일로 지정됨.

### ◆ 플랫폼 노동자 대상 직업훈련 도입

#### ○ 청소·보육 분야 시범사업으로 시행

- 7월 11일 고용노동부는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향상과 플랫폼 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플랫폼 종사자 특화 직업훈련 시범사업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음.
- 이번 사업은 노동자 한 명당 5년간 300만~500만 원의 훈련수당을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에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다만 플랫폼 노동자는 최대 200만 원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해 훈련비 전액을 지원함.
- 시범사업 훈련 분야는 플랫폼 산업이 활성화한 영역인 인공지능·청소·보육·자동차운전운송 등임. 6개 기관에서 10개 과정을 개설하고 직무전문성과 안전·근로권익 교과를 필수교과로 지정해 훈련을 제공함.
- 예산 70억 원을 투입해 플랫폼 노동자 9만 4,020명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훈

련을 수료한 훈련생이 소득증가·처우개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교육기관이 사후점검도 할 예정이다.

### ◆ 플랫폼노동자, 10명 중 7명 이상이 “고용 불안”

○ 하루 노동시간 10시간 넘고 평균 나이 46세에 경력 7년 넘어

- 6월 23일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녹색병원·일과건강은 ‘플랫폼·배달노동자 안전보건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지난 4월 라이더·퀵서비스·택배·가사관리·대리운전 플랫폼에 종사하는 537명의 노동환경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0.3시간이었으며, 택배노동자의 노동시간이 11.1시간으로 가장 길고, 라이더·퀵은 10.2시간, 대리운전은 9.6시간, 가사관리는 6.5시간이었음.
- 주 평균 근무일수는 5.5일이며, 대리운전기사가 6.1일로 가장 길었음. 근무 중 식사에 대해선 ‘못 먹는다’는 응답이 34.0%, ‘편의점 등에서 간단히 해결한다’는 응답이 32.3%였음. ‘식당에서 사먹는다’는 응답은 21.6%였음.
- 현재 맡고 있는 업무량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과하다는 답변이 절반 이상(매우 과함 14.7%, 약간 과함 38.9%)이었음. 코로나19 이후 업무량에 대해선 ‘매우 증가’(22.9%)나 ‘약간 증가’(39.1%)라는 답변이 많았음.
- 본인의 고용상태에 대해 10명 중 7명 이상(매우 불안 33.7%, 약간 불안 38.0%)이 불안하다고 답했음. 코로나19 이후 플랫폼노동자 수가 크게 늘어 경쟁이 심해진 것이 불안 요인 중 하나로 꼽혔음.
- 안전교육도 미비했음. 플랫폼노동을 하면서 사업주나 협회로부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다’는 응답이 45.1%, ‘한 번 들었다’는 응답이 28.2%였음. ‘교육받은 적 없고 사인만 받아갔다’는 응답도 11.9%였음.

### ◆ “비정규직 10명 중 3명 ‘코로나 실직’ 경험, 정규직의 5배”

○ 2020년 1월과 비교해 소득이 줄었다고 대답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53.8%

- 6월 27일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공개한 2021년 2분기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1월 이후 일자리를 잃은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31%로 정규직 노동자 실직 경험률(6.2%)의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실직한 이들 중 정규직 노동자의 51.4%가 실업급여를 받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는 29%만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답했음. 2020년 1월과 비교해 소득이 줄었다고 대답한 비정규직 노

- 동자는 53.8%로, 소득감소를 경험했다고 답한 정규직 노동자(17%)의 3.2배나 됐다. 비자발적 휴직경험률도 비정규직 노동자(33%)가 정규직 노동자(12.5%)의 2.6배에 달했음.
-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음.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미가입률을 보면 국민연금 55.8%, 건강보험 53%, 고용보험 48.8%로 정규직(국민연금 6.2%·건강보험 2.8%·고용보험 6.7%)에 견줘 7~19배나 될 정도로 높았음.
  - 업무 중 다쳤을 때 산업재해 보상보험 처리 비율도 정규직은 56%, 비정규직은 31%로 큰 차이가 났음. 현 직장의 고용상태에 대해선 정규직 노동자는 71%가 '안정돼 있다'고 답했으나, 비정규직 노동자는 64%가 '불안하다'고 답했음.

(조규준, 동향분석실 연구원)